

1. EXHIBITION



배달래

Photo by Kim Jiwook

퍼포머의 행위에 의해 그려진 즉흥적 페인팅들은 서로 밀착되어, 색과 이미지의 밀도와 회화적 설치작품으로서 입체감을 부여한 작품들과 행위의 결과물인 평면작품들을 소개한다.

‘여민락 2악장’은 세종대왕이 백성들과 함께 즐기고자 직접 작곡한 곡으로 제작 되었으며, ‘삶이 꽃이 되는 순간’ 작품은 일본군 성노예자들을 위한 퍼포먼스의 결과물이며, ‘바람잡주곡’ 역시 퍼포먼스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바람일기’ 시리즈는 제주에 입도하여 산과, 바다, 들에서 현장에서 그린 ‘바람 드로잉’ 작품들이다.

전시 모든 작품들은 퍼포먼스와 회화가 결합된 작품들로 그 현장성이 살아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개막 퍼포먼스: 서학동 광장    전시: 서학아트스페이스 B-1

2.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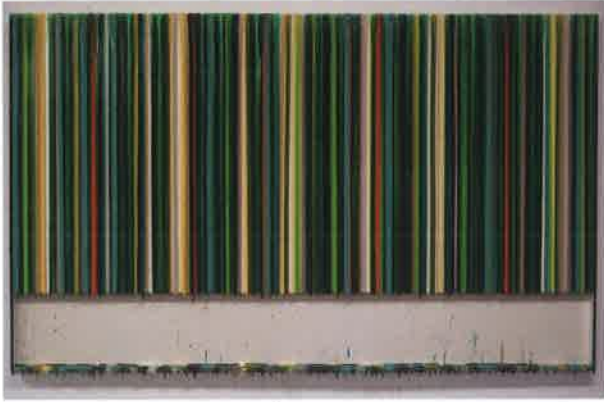


유용상

“와인 잔에 철학을 담다”  
“Philosophy in the Wine Glass”  
‘한 병의 와인에는 세상의 어떤 책보다 많은 철학이 있다.’  
파스티캅가 한 명언처럼 와인을 단순히 마시는 음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그 속에 철학을 담기위한 작업을 한지 어언 17년..나의 작업에는 늘 음료가 담겨 있거나 비워져 있는 흔들리는 와인잔이나 종이컵이 주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이미지 속에서는 정지된 듯 정확한 초점에 물체를 향해 극대화된 이미지가 중첩되어 시점의 융합과 복합이 한 화면 속에서 이루어 진다. 최근 작업에서는 아름다운 구속이라 주제로 인간의 대리물로 와인잔 안에 꽃을 등장 시켜 모순적인 인간의 현실에 대한 질문을 역설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장소: 서학아트스페이스 2F

3. EXHIBITION



구상희

작가는 도로반사경, CCTV화면, 볼록렌즈 등의 왜곡된 시선을 통해 현대사회나 전통텍스트의 이면을 포착하는 작업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던 중 소외된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다. 구석진 주변과 모서리는 중앙중심사고에서는 소외된 이면의 공간이었다. 프레임은 주목받지 못하는 화폭 너머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작가의 관심은 그 소외된 공간에서 출발했다. 죽었던 프레임은 화려한 색감으로 되살아났고, 구석과 모서리는 색감의 발원지가 되었다. 작업의 시선은 물감을 타고 주변으로 흐른다. 흐름은 중력이자 무의식의 시간성이기도 하다.

장소: 서학아트스페이스 2F

4. EXHIBITION



최수정

작가는 고전프린트에 심취하였고 특히 유난히 좋아하는 꽃등을 소재로 작업하였다. 이번에 전시하는 검 프린트와 시아노 타잎은 19세기 회화주의 사진이 널리 유행할 무렵 등장한 비은염 계열의 컬러 인화 기법으로서 판화, 회화, 사진의 특성을 고루 지니고 있다. 수채화 물감으로부터 다양하고 독특한 색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수작업 과정을 통해 작가의 주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완성 후의 큰 성취감이 매력이다.

장소: 아트갤러리전주 2F

5. SPECIAL EXHIBITION



이재갑

이재갑은 이 작품을 통해 우리 민족문화의 유산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전주에서 우리 현대사의 숨죽은 유산을 소생시키고자 한다. 불과 50여 년 전 베트남전쟁에 참전하여 목숨과 젊음을 희생한 우리 국군용이제 기억 속에서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그분들의 용기와 열정, 고통과 과오는 우리 역사의 일부이고 현재 우리 모습의 일부이다. 이재갑의 사진은 그 분들을 찬양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다. 다만 후손들에게 남겨준 유산과 책임을 잊지 않으려한다. 사진을 통해 쓰인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끝없이 이어갈 삶과 죽음의 연쇄에 대해 말해준다. 결국 그 어떤 것도 사라지지 않으며 우리의 기억은 계속될 것이다.

장소: 아트갤러리전주 1F

6.쿠스트 초대작가 대표작품 포스터전

배달래, 유용상, 구상희, 최수정, 이재갑 / 장소: 선재미술관

7. 공방거리 마켓투어



늘소담, 바느질하는 뽀나, 마녀뜨개, 책방책꾸, 초록뿔, 미담초이  
작은술도자기 공방, 아물리에274, 한복지, 미연아트숍  
자수공방 미앤느, 620 정원, j공예사랑, 꿈자락

서학동갤러리길 공방예술가들의 마켓이 형성된다. 다양한 소품 및 가치있는 작품들을 직접 작가와 대화하면서 구입할 수 있는 마켓투어다. 갤러리길 한편에는 마을 주민들의 푸드마켓도 함께 진행된다.

